

#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

## 자산운용보고서

2016년 01월 04일 - 2016년 04월 03일

- 이 상품은 [주식형 펀드] 로서,  
[추가 입금이 가능한 추가형이고, 다양한 판매보수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종류형 펀드입니다.]
-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Contents

- 왜 글로벌 헬스케어에 투자해야 하는가?
-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현황
- 포트폴리오 운용현황
- 펀드의 개요
- 수익률 현황
- 자산현황
- 투자전문인력 현황
- 비용현황
- 투자자산매매내역
-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공지사향

〈참고 - 펀드용어정리〉

## 왜 글로벌 헬스케어에 투자해야 하는가?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은 섹터의 범위를 뛰어넘어 인간 건강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8,000조원 이상의 규모로 추산됩니다. 세계 경제 여러 분야가 저성장 흐름에 접어들고 있지만, 헬스케어 시장은 성장을 거듭해왔으며 앞으로도 고령화 추세를 비롯해 인구구조 변화, 라이프 스타일 변화, 이머징 마켓의 국부증가, 그리고 기술혁신 등의 지속 가능한 펀더멘탈 요인들을 바탕으로 성장성이 가장 유망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 •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 보유

인구 고령화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추세로 비단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40년 후 세계 인구는 현 수준에서 약 1/3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한편 60대 이상의 노년층 인구는 현재의 약 3배 수준인 20억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hart 1: 60세 이상 인구 비율 및 지역 추세 (단위: 백만 명)



Source: WHO, World Report on Ageing and Health, 2015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심혈관질환, 관상동맥질환, 암, 당뇨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인구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른 노년층의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는 그 어떤 연령대 보다 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가져온 운동 부족, 스트레스, 고열량 식단 등 서구식 라이프 스타일의 확산은 동서를 막론하고 비만인구의 확대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질병 발생률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반해 의료 기술의 발달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세계인의 기대수명은 매년 세 달씩 연장되어 건강 수명을 나타내는 지표들도 과거에 비해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 기술의 혁신과 발전으로 인해 과거에는 치명적이었던 질병들은 걸려도 생존이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질환은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며 높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법들은 높은 가격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어야 그 가치를 인정 받습니다. 현존 약물 대비 더 높은 효용을 제공하며, 부작용을 줄이고, 입원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혁신적인 약물과 치료법들은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진정한 혜택과 효과를 주기 때문에 전반적 의료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헬스케어 산업의 또 하나의 큰 성장 동력으로 인구당 소득의 증가로 인한 헬스케어 지출의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신흥국 시장에서의 경제 개혁 및 중산층 확대는 헬스케어 수요를 증대 시킬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국가별 의료제도 개혁은 헬스케어 업계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시키도록 유도하여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 주목 받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헬스케어 산업은 높은 마진의 혁신적인 치료제와 의료기기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을 제공합니다. 전문 운용 팀의 분석을 통해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장기적 안목을 지닌 투자자들에게 훌륭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수준

글로벌 헬스케어 섹터는 전체 글로벌 증시에서 약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산업으로 (MSCI World Index 기준), 기술적 타이밍이 아닌 '매수 후 보유 (buy-and-hold)' 전략에 의거한 장기투자가 원칙입니다. 최근 섹터의 펀더멘탈과 무관한 시장의 심리적 요인과 글로벌 주식시장의 섹터순환매에 의한 과도한 가격 조정은 좋은 매수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글로벌 헬스케어 섹터는 전체 MSCI World 지수 대비 +66.9%의 초과성과 (outperformance)를 달성하였습니다 (연 평균 +3.9%, USD기준). 하지만 여전히 헬스케어 산업 내에서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성장성을 감안할 경우 현재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의 중장기적 매력도는 기업의 성장성과 현재 주가 간의 상대적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PEG ratio (주가이익/성장 비율)을 통해서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제약업을 제외한 하부 섹터들의 주가이익성장 비율 (PEG ratio)이 1배를 하회하는 수준인 반면, S&P 500지수의 경우 2.1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성장성을 감안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Chart 2: 헬스케어 산업 내 하부섹터 밸류에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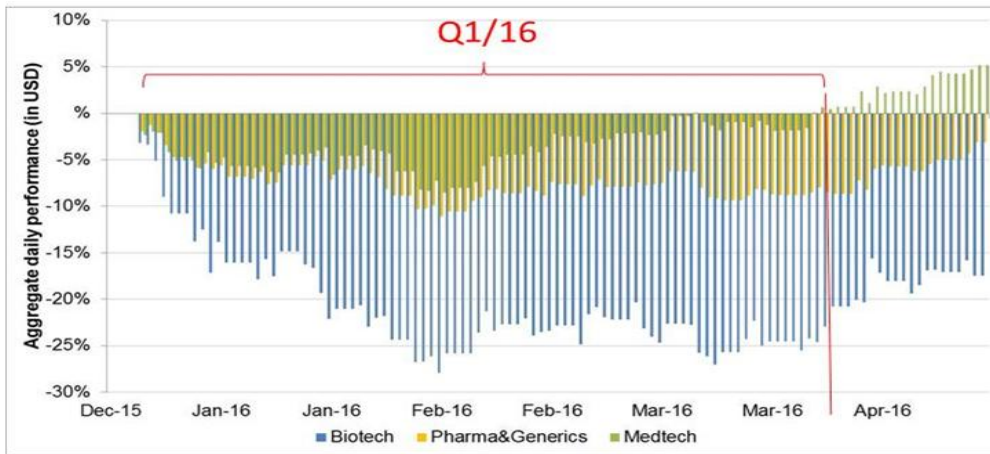
헬스케어 구성분야	바이오텍	제네틱	제약	의료기기	서비스
P/E 2017E	16	11	16	16	15
PEG 2017E	0.6	0.5	1.5	0.9	0.6
<b>S&amp;P500 INDEX</b>					
P/E 2017E	15				
PEG 2017E	2.1				

결론적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은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장기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는 필수적인 투자대상입니다.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살아있는 산업으로 성장성에 맞게 높은 투자 수익이 예상되며 현 가격 수준은 성장성 대비 상당히 저평가 되어 있는 좋은 진입 시점입니다. 전반적인 의료비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투자는 의료비를 지불하는 입장인 일반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자연적인 헷징 수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현황

메리츠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가 출시된 2016년 1분기는 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주가 하락세가 두드러진 기간이었습니다. 국제 유가의 하락, 중동과 유럽의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 외환 시장의 높은 변동성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은 금년 2월 중순까지 약 10% 하락하는 가운데, 독일의 DAX 지수의 경우 헷지펀드 공매도의 영향으로 동 기간 18%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변동성은 미연방준비은행의 1차 금리결정에도 일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준의 첫 금리인상에 주식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든 후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발표하면서, 유로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가 조정세로 돌아서기 시작하며 유럽의 주식시장은 다시 반등을 하였으나, 그 반등폭은 연초 이후 하락세를 절반 정도 회복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저희 펀드의 투자대상인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구성 기업들의 건전한 펀더멘탈과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반적인 시장의 조정에 달러 기준 7%의 하락폭을 보였고 섹터 간 순환매에 따라 헬스케어 산업 내 특정 하부섹터들의 하락세가 더욱 두드러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나친 가격인상 전략과 회계조작 스캔들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캐나다 제약사 Valeant의 연간보고서 제출 연기 또한 동 섹터에 대한 추가적인 하방압력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Graph 2: 헬스케어 산업 내 하부 섹터별 성과 (2016년 1분기, USD기준)



지난 수년간 상승세가 가장 가파르게 오른 바이오텍 섹터는 위 성과표에서 볼수 있듯이 지난 분기 조정을 맞아 차익실현 매도세가 강화되면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특히 미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쏟아내는 헬스케어 관련 정치적 공세 (의료 비용, 약가 문제)의 영향으로 동 산업에 대한 주식시장 수급은 좋지 못했습니다. 나스닥 바이오텍 지수 (Nasdaq Biotech Index)도 분기 중 약 22.8% 넘게 하락하면서 역대 가장 큰 폭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지난 수년 간 실적도 없이 R&D 파이프라인 만으로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경험 했던 중소형주들의 주가 하락세 및 조정이 가장 컸으며, 반면 실제로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대형 바이오텍 기업들의 경우 조정폭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바이오텍 섹터의 성장은 관련 기업들의 임상실험 (특히 후기 임상)에서 나오는 긍정적 데이터와 허가당국이 내주는 신약 판매허가라는 대표적인 펀더멘탈 지표들을 통해 그 성과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과는 달리 2016년 1분기 동안 바이오 섹터 주식들은 호재에 둔감하고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긍정적인 임상 결과 및 판매허가 소식에도 주가는 단기적 상승세를 보인 뒤 차익실현 매도세에 하락 국면으로 돌아섰고, 부정적인 뉴스로 인해 가파른 폭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조정장세가 바이오 섹터에 진입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수준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동 섹터의 2017년 PEG ratio는 0.6배 수준에 머물러 있고, 연평균 매출성장률은 약 15%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익 창출력과 성장성이 뛰어난 대형 바이오텍 종목들의 PER는 현재 제약주들의 PER 보다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있는 상황입니다.

### - 제약/제네릭 섹터

제약, 복제약 (제네릭), 특수약품섹터 또한 바이오텍의 하락과 동반 하락세를 보였지만, 그 조정폭은 약 -8.5% 로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방어적 성향이 강한 초대형 제약주들 (Johnson & Johnson, GlaxoSmithKline, Merck & Co 등)은 전체 제약섹터의 주가하락폭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였고, 오히려 분기 말에는 각각 +6.1%, +3.6%, +1.0%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제약섹터는 향후 평균 매출 성장률의 기대치가 약 3-5% 수준인 반면 2017년 PEG 배수는 약 1.5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약섹터 내 개별 종목에 한정된 투자 기회가 존재할 수 있고, 전체 헬스케어 시장의 변동성을 안정적인 주가흐름으로 방어해줄 수 있겠지만, 메리츠 글로벌 헬스케어 전략의 바텀업 접근의 결과로 현재는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2017년 PEG 기준 0.5배에서 거래되는 복제약 섹터의 경우 연평균 10% 이상의 매출성장률이 기대되는 등 현재 제약주 대비 더욱 매력적인 투자대안으로 판단됩니다. 제네릭 섹터의 경우 미국 약가인하 논란, 대체치료법이 없거나 적은 치료제의 복제약 승인절차 단축, 미국 내 바이오시밀러 승인 등의 소식에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 - 의료기기 섹터

제약/바이오 등 치료제 분야와 비교했을 때, 의료 장비 섹터는 이번 조정 기간 동안 더욱 방어적인 성향을 보여주었고, 분기말 섹터 지수가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0.5%). 의료장비 섹터는 여전히 잠재적인 수요가 풍부하고 기술혁신이 지속되고 있는 분야로서, 향후 관련 기업들의 이익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기업들은 정형외과 및 심장보조장치 매출 강세가 이머징 마켓의 매출 성장률 약세를 상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동 업계에서 계속되고 있는 경쟁업체 간의 M&A는 비용절감을 통해 2016년 이익 마진을 더욱 높여 줄 것으로 예상 됩니다. Baxter, Cochlear, Edwards 등의 기업이 지난 분기 의료장비 섹터에서 가장 돋보였던 기업들입니다. Baxter는 이머징 마켓 향 매출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 강한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고, 호주의 보청기 전문기업인 Cochlear는 상당한 실적 성장과 함께 첫 번째 Smart Bone Conduction Solution 제품이 FDA 판매허가를 받으면서 주가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소침습 의료장비 기업 Edwards의 경우, 최근 실시하고 있는 Sapien 3 인조밸브 (트랜스 카테터)의 임상실험에서 심장을 통과하는 전통적인 수술방법 대비, 허벅지 대동맥의 작은 구멍을 통한 삽입을 통해 훨씬 우수한 임상결과를 도출해 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본 임상실험 결과에 힘입어, Edwards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금년 내 중위험 수준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술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펀드에서 보유 중인 일본 의료 장비 기업인 Cyberdyne은 지난 분기 중 펀드 수익률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일본 후생성은 지난 2015년 11월 25일 Cyberdyne의 의료용 로봇수트인 "HAL" (하반신 타입)의 판매허가를 발표하였고, 2016년 2월 10일에는 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HAL의 시판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비록 일본의 보험수가가 기존 독일 시장에서의 보험수가 (Germa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scheme)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렌탈 프로그램'의 가격은 독일의 수준과 비슷하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HAL 로봇수트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되면서 상용화가 본격화 되고 난 이후에는, 추가적인 적응증인 척수마비 환자 및 뇌졸중 환자에 대한 동 장비의 적용여부가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 - 서비스 섹터

한편 헬스케어 서비스 섹터의 경우, 매니지드 케어 (Managed Care: 의료보험을 포함한 종합 헬스케어 서비스) 업체들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분기실적을 발표하면서, 전체적으로 방어적인 성향을 보이며 지난 분기 말 기준 약 -2-4%의 비교적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미국 내 대형 병원체인 기업인 HCA는 작년 4분기 이익(EBITDA)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 상승을 시현하였습니다. 한편 경쟁업체인 Community Health는 대손충당금의 증가와 급여비용 상승 등으로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HCA의 경우 기술력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도심 시장에 대한 영업력 개선에 힘입어 금년 들어 최고의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내 대형 의료보험 및 서비스 기업인 UnitedHealth Group은 저비용 보험 플랜을 통해 젊은 소비자 층에서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것이 기대되면서, 지난 1분기를 상승하며 마감하였습니다.

한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머징 마켓 헬스케어 업계의 동향입니다. 지난 5분기 연속 전체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 부진한 수익률 기록했던 이머징 마켓 헬스케어는 지난 1분기 중에 그 동안 잠재되어 있던 강한 성장세를 시현하면서 아시아 헬스케어 주식 편입 비율이 높은 저희 펀드의 수익률에 기여하였습니다.

현재 시장의 투자심리는 산업과 그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시현하고 있는 펀더멘탈에 비춰보았을 때 과도하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거시경기, 정치적 캠페인 등 외부 영향으로 인해 주식시장 변동성이 유지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와 동시에 역사적으로 매력적인 가격대를 진입 기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성장성과 펀더멘탈이 우수하고 이에 비해 현 주가 수준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바이오텍, 복제약 (바이오시밀러를 포함한 제네릭) 그리고 의료장비 섹터에 대해 올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 산업의 미래는 여전히 기술혁신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기업들이 계획하고 있는 신약 출시 파이프라인 라인업은 풍부한 상황이며, 허가당국인 미 FDA 역시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포트폴리오 운용현황

### ▶ 운용현황

메리츠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는 벤치마크를 추종하지 않고 펀더멘탈에 기반한 바텀업 방식의 종목 선택을 하여 성장성과 수익성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장기 투자 합니다.

펀드(종류A기준)는 [2016.01.04 ~ 2016.04.03] 기간 동안 원화 순자산 기준으로 약 8.94% 하락하였고, 동기간 벤치마크인 MSCI 월드 헬스케어 지수는 약 -8.27% 하락하였습니다. 운용기간 중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부분이 수익률에 다소 영향을 주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보유 중인 바이오텍 종목들은 동 분기 펀드의 수익률을 감소 시켰으나, 한편 대형 다국적 제약기업들 ('Big Pharma': Novartis, Roche, Pfizer 등)의 underweight으로 인해 펀드 수익률 향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동 분기 중 펀드의 수익률 기여도가 가장 높았던 기업들은 HCA, Sinopharm, M3 그리고 Coherus 였습니다. HCA와 Sinopharm은 매우 긍정적인 연간실적 및 분기실적을 발표하였으며, 일본계 헬스케어 인터넷 포털 기업인 M3의 경우 영업 수익과 영업이익이 각각 23%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미 FDA가 항체 치료제 레미케이드에 대한 첫번째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긍정적인 추천 의견을 발표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 고조로 보유 종목인 바이오시밀러 기업 Coherus도 수혜를 받았습니다.

한편 인바디, Sino Biopharma, Cigna Corp의 경우, 분기 동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체지방 측정기 및 최근 웨어러블 밴드를 개발/생산하는 국내 헬스케어 기업인 인바디의 경우, 기업의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그간의 추가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도세가 강했었고, 펀드는 이를 좋은 매수기회로 보아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중국 기업 Sino Biopharma는 2015 실적이 연간 목표에 미치지 못하였고, 미국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인 Cigna의 경우 약가인하 등 미 대선을 둘러싼 정치적 요인에 기인한 헬스케어 서비스 섹터 하락세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6년 1분기 중 저희가 교체한 종목으로는 일본기업인 Astellas와 신규 편입 기업인 Ono Pharma가 있습니다. 첫째 Astellas의 경우, 전립선 암 치료제인 Xtandi의 향후 매출 성장세가 이전만큼 크게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으며 신규 편입 기업인 Ono Pharma의 경우는 면역항암 (Immuno-Oncology) 분야의 선두주자 포지션에 힘입어 실적이 꾸준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내 최선호주로는 M3, Gilead, UnitedHealth Group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일본계 기업 M3는 Medicine (약), Media (매체), Metamorphosis (변신, 탈바꿈)의 세가지 단어를 의미하는 기업명을 가지고, "헬스케어 온라인 포털"의 선두 주자로 자리잡은 기업입니다. M3가 운영하는 포털은 의사, 제약회사 등 헬스케어 업계의 관련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들 각자가 가진 정보 needs가 만나면서 비즈니스가 이루어 집니다. 현재 M3는 미국, 아시아, 유럽에서 활발한 영업을 펼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약 2백만명의 의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최신 의료정보, 해외 학술정보, 기타 온라인 상의 헬스케어 산업 관련 정보를 비롯하여, M3의 포털은 의사들 간의 전문적 지식공유, 의사들을 위한 온라인 구직 플랫폼(job search platform)으로서의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M3의 주당순이익은 지난 해 약 20% 성장하였으며, "의사들의 페이스북"이라는 reputation과 같이, "디지털 헬스케어 (healthcare digitization)"의 추세적 성장에 따라 더욱 빠른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가총액 9조원인 M3의 PEG 배수는 현재 약 2배를 넘어 다소 높은 측면이 있지만, 일본 주식시장 전반의 PEG가 약 2-3배 수준에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큰 무리가 없고, 향후 동 기업의 성장성을 비취보았을 때 장기 보유해 나갈 기업으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바이오텍의 대표적 기업 Gilead는 C형 간염과 HIV 치료분야의 독보적 리더 기업입니다. 현재 TAF (체내 화학반응을 통해 바이러스의 DNA 합성을 억제시키는 약물 전구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세계 유일한 기업으로서, 지난 3월 미 FDA로부터 TAF 기술을 활용한 치료제 (Odefsey)에 대한 판매 허가를 받게 되었고, 유럽에서도 역시 유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Descovy의 판매허가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Descovy는 성인 및 미성년 HIV-1 감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른 '레트로 바이러스' 치료제와 병행하여 처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주: 레트로 바이러스는 HIV와 같이 '역전사 효소'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역전사 효소는 많은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진화과정에서 약물에 대한 내성을 갖게 됩니다.) Gilead가 개발 중인 TAF 기술은 기존 Viread 계통 치료제의 차세대 버전으로서, 기존 치료제의 문제점이었던 환자의 뼈 및 신장에 대한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줌으로써, 향후 HIV 시장에서 Gilead의 선도적 포지션을 더욱 강화시켜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Viread 계통의 치료제는 HIV 뿐 아니라, 만성 B형 간염의 치료에도 활용될 수 있는데, 완치까지는 아니지만, 간염 바이러스의 증식능력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B형 간염은 현재 유럽에서만 약 1,400만 명의 환자가 존재하고, 매년 약 백만명씩 환자가 늘어날 정도로 심각한 질환 분야입니다. 향후에는 동일한 기술기반을 활용하여, HIV와 B형 간염을 넘어, 혈액암 분야와 중양치료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Gilead의 성장성은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골수섬유증, 췌장암, 위암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이 진행 중). Gilead의 현재 2017년 PER 배수는 약 6배에 불과하며, 이는 매우 예외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저가 매수기회입니다.

한편 헬스케어 서비스 섹터의 UnitedHealth Group은 미국 의료시장의 매니지드 케어 (Managed Care: 의료보험을 포함한 종합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의 시장 선두기업으로서, '오바마 케어'의 민간 의료보험 중심 프로그램인 Medicare Advantage와 저소득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Medicaid 프로그램에서 성장성이 부각되는 기업입니다. UnitedHealth는 전반적인 인구 고령화 추세 및 민간 의료보험 전환 추세에 힘입어 금년에도 높은 한 자릿수의 가입자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입니다. 주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Medicaid 관련 비용 부담으로 인해 민간보험사들의 마진이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지만 Medicare 쪽의 보험료는 인상 추세에 있어 Medicaid의 수익성 감소 효과를 상쇄 시켜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기업의 사업 모델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첫째는 'UnitedHealthcare' 부문으로 의료보험 사업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헬스케어 IT, 약물배송 (우편 배송), 병원 지불 시스템 운영 등을 담당하는 Optum 부문입니다.

각 사업 부문은 현재 미국의 헬스케어 시스템이 맞이 하고 있는 의료 소비자 중심의 대변혁 시대에 적합한 '서비스 효율화와 통합'이라는 과제에 잘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UnitedHealth가 보유한 각 사업부들은 IT기반에 축적된 의료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환자와 의사들의 의사결정을 돕고, 약물 배송 (delivery) 시스템의 효율화를 통해 보다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병원과 정부 부처의 행정, 재무관리 시스템에 대한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금년 초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년도 실적발표를 통해 긍정적인 출발을 하였고, 앞으로도 연 평균 약 10%대의 매출 성장률 및 우수한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동사의 2017년 PEG 배수는 약 0.9배 수준입니다.

### ▶ Outlook

동 분기 중 저희 헬스케어 전문 운용역들은 다양한 관련 컨퍼런스에 참석하면서, 업계의 현황과 트렌드를 점검하는 기회들을 가졌습니다. 이 중 글로벌 헬스케어 투자업계의 핵심 행사라고 할 수 있는 JP Morgan 헬스케어 컨퍼런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동 섹터의 다양한 기술과 혁신 트렌드 이외에, 현재 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시장 전반의 성장 둔화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미 대선이 다가오면서 미국 헬스케어 업계의 가격인하 압력 (약가/보험수가 등)에 관한 정치적 이슈였습니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전반적 둔화에 따라 일반적 산업재 및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둔화된다고 가정할 지라도, 중국은 자국 내 의료서비스 인프라의 발전이 시급한 국가로서, 경기 사이클과는 무관하게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내 약가를 둘러싼 정치적 잡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장비 섹터의 경우 이와는 관련성이 적은 하부섹터로서 금번 글로벌 주식시장 조정에서도 하락폭이 크지 않아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였습니다. 의료장비 시장에서 Stryker나 Zimmerbiomet과 같은 대표기업들의 경우, 이미 매년 소폭의 가격인하 요구를 시장으로부터 받아오고 있던 상황이지만 이들 기업들은 협상력이 강한 병원 시장을 대상으로 한 제품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더욱 큰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기 위해, 혁신적 R&D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어 여전히 경쟁력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미 대선을 둘러싼 약가인하 논쟁 와중에 오히려 수혜를 보고 있는 업종은 '복제약 (generic)' 섹터입니다. 제네릭 섹터는 가시범위 내 들어온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성장을 근간으로 새로운 호황기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동 섹터 전반의 향후 성장 전망치는 연간 약 10-12%에 이르고, 아직도 세계적으로 복제약의 보편화 정도가 낮은 국가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러한 성장은 추세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경우 제네릭 시장이 미국 대비 15-20년 뒤쳐져 있는 상태로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판단되며,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와 같은 나라들의 시장의 경우 이미 두 자리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를 위시한 미래의 복제약 부문은 현재 글로벌 시장규모 약 20억 달러에서 추후 약 200-25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 섹터의 벨류에이션 (주가-이익성장 비율: PEG)은 0.5배 수준으로 투자자들에게 있어 매력적인 진입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의 혁신을 이끄는 대표적 분야인 바이오텍에서도 지속적인 진전이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면역항암 (immunooncology) 분야에서 빠른 진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기존 전통적인 항암치료와 면역항암치료가 가지는 차이점으로는 1) 종양이 아닌 '인체의 면역기능'을 이용하여 암을 치료 하고, 2) 인체 면역기능이 암세포만을 선별적으로 감지한 공격이 가능케 하며, 3) 면역체계에 장기적으로 작용하여 지속적으로 종양의 변이에 적응하며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점입니다.

면역항암요법은 다양한 유형의 암 질환에 걸쳐 적용이 가능한데, 현재 흑색종 (피부암 일종)과 폐암을 최초 적용분야로 출발하여, 다른 많은 유형의 암 질환에 적용시키기 위한 임상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혁신적 치료법은 비단 Celgene 같은 글로벌 바이오 대기업뿐만 아니라, Incyte (폐암, 다발성 골수종), Juno Therapeutics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Ono Pharma (폐암, 직장암), Kite Pharma (자궁경부암; 인간유두종바이러스) 등 아직 중형주에 속하는 바이오 기업들에서도 활발한 임상연구의 진전이 보고되고 있어, 향후 2-3년 간 관련 기술과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시장상황과 가격수준은 본 산업이 제공하는 장기적 성장세를 보고 진입하기에 매력적인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은 여전히 단기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변동성을 나타낼 수가 있겠지만, 시장이 크고 작은 파도를 만날 때마다 진정한 가치투자자들은 헬스케어 산업이 가진 장기적 확신에 근거하여 투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바텀업 분석에 의거하여 하부 섹터별 비중 배분을 처음과 변동 없이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펀더멘탈 체크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는 펀더멘탈에 기반한 바텀업 투자방식으로 벤치마크를 추종하지 않는 투자 전략을 구사하며, 이러한 전략이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찾아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구성한 포트폴리오는 현재 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분산 되어 있음을 본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전달해드리고, 확신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투자하는 종목들은 각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헬스케어 전체 시장의 성장률을 상회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현재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어있는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향후 3년 간 연 14%에 달하는 외형성장이 예상되며, PEG ratio는 1.0배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으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섹터의 주식은 모든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 장기적, 전략적인 포석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단기적인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접근이 아닌 뚜렷한 성장 요인을 보유하고 있는 동 산업에 장기적인 접근 방식으로 매수 후 보유 (buy and hold) 전략을 추구하실 것을 조언해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펀드의 개요**

펀드위험등급	
1	매우 높은위험
2	높은위험
3	중간위험
4	낮은위험
5	매우 낮은위험



▶ 기본정보      적용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험등급

펀드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		B9467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A		B9468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Ae		B9469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1		B9470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e		B9475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S		B9477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W		B9483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P		B9484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P2		B9486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S-P		B9488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Pe		B9490	
펀드의 종류	투자신탁,증권펀드(주식형),추가형,개방형,종류형	최초설정일	2016.01.04
운용기간	2016.01.04 - 2016.04.03	존속기간	종료일이 따로 없습니다.
자산운용회사	메리츠자산운용	판매회사	하나은행,메리츠증권,펀드온라인코리아 외 19개
펀드재산보관회사 (신탁업자)	국민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한아이타스

**상품의 특징**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펀드는 헬스케어분야에서 20년 이상의 운용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럽 최대규모의 헬스케어 전문운용사인 밸류자산운용과 메리츠자산운용이 공동으로 운용하며, 전 세계의 유망한 헬스케어 기업에 장기투자하여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합니다.

주) 펀드의 자세한 판매회사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http://dis.fundservice.net> ], 운용사 홈페이지 [ [www.meritzam.com](http://www.meritzam.com)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현황**

(단위: 백만원, %)

※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펀드명칭	항목	전 기 말	당 기 말	증감률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	자산총액	-	9,876	-
	부채총액	-	551	-
	순자산총액	-	9,325	-
	기준가격	-	914.25	-
종류(Class)별 기준가격 현황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A	기준가격	-	910.57	-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Ae	기준가격	-	911.25	-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1	기준가격	-	908.93	-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e	기준가격	-	910.80	-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S	기준가격	-	911.38	-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W	기준가격	-	968.55	-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P	기준가격	-	910.69	-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P2	기준가격	-	929.05	-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S-P	기준가격	-	911.54	-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Pe	기준가격	-	911.36	-

주)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펀드를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분배금내역

(단위: 백만원, 백만좌)

※해당사항 없음

**수익률 현황**

▶ 기간수익률

(단위: %)

펀드명칭	최근3개월	최근6개월	최근9개월	최근12개월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16.01.04 ~ 16.04.03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	-8.58	-	-	-	-	-	-
(비교지수대비 성과)	(-0.31)	-	-	-	-	-	-
비교지수	-8.27	-	-	-	-	-	-
종류(Class)별 현황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A	-8.94	-	-	-	-	-	-
(비교지수대비 성과)	(-0.67)	-	-	-	-	-	-
비교지수	-8.27	-	-	-	-	-	-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Ae	-8.88	-	-	-	-	-	-
(비교지수대비 성과)	(-0.61)	-	-	-	-	-	-
비교지수	-8.27	-	-	-	-	-	-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1	-9.11	-	-	-	-	-	-
(비교지수대비 성과)	(-0.84)	-	-	-	-	-	-
비교지수	-8.27	-	-	-	-	-	-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e	-8.92	-	-	-	-	-	-
(비교지수대비 성과)	(-0.65)	-	-	-	-	-	-
비교지수	-8.27	-	-	-	-	-	-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S	-8.86	-	-	-	-	-	-
(비교지수대비 성과)	(-0.59)	-	-	-	-	-	-
비교지수	-8.27	-	-	-	-	-	-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W	-	-	-	-	-	-	-
(비교지수대비 성과)	-	-	-	-	-	-	-
비교지수	-	-	-	-	-	-	-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P	-8.93	-	-	-	-	-	-
(비교지수대비 성과)	(-0.66)	-	-	-	-	-	-
비교지수	-8.27	-	-	-	-	-	-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P2	-	-	-	-	-	-	-
(비교지수대비 성과)	-	-	-	-	-	-	-
비교지수	-	-	-	-	-	-	-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S-P	-8.85	-	-	-	-	-	-
(비교지수대비 성과)	(-0.58)	-	-	-	-	-	-
비교지수	-8.27	-	-	-	-	-	-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Pe	-8.86	-	-	-	-	-	-
(비교지수대비 성과)	(-0.59)	-	-	-	-	-	-
비교지수	-8.27	-	-	-	-	-	-

※ 비교지수: (1 \* ((1+[MSCI World Healthcare (USD)]\*(1+[USD 미국 환율]))-1)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추적오차

(단위: %)

※해당사항 없음

▶ 손익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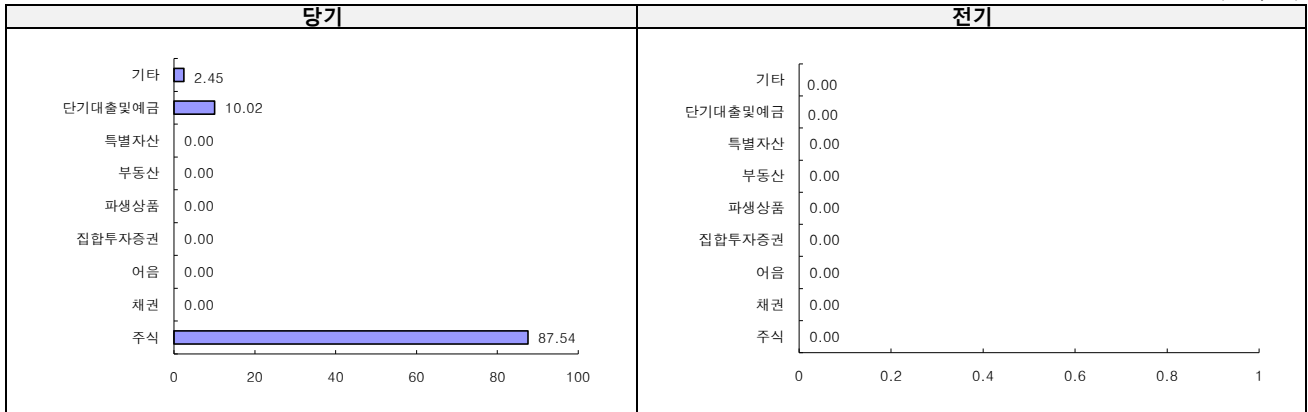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전기	-	-	-	-	-	-	-	-	-	-	-	-
당기	-260	-	-	-	-	-	-	-	-	1	-32	-291

## 자산현황

### ▶ 자산구성현황

(단위: %)



### [자산구성현황]

(단위: 백만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444	-	-	-	-	-	-	-	-	493	241	1,178
	(4.49)	-	-	-	-	-	-	-	-	(4.99)	(2.45)	(11.93)
DKK	238	-	-	-	-	-	-	-	-	-	-	238
176.43	(2.41)	-	-	-	-	-	-	-	-	-	-	(2.41)
EUR	211	-	-	-	-	-	-	-	-	-	-	211
1,314.69	(2.14)	-	-	-	-	-	-	-	-	-	-	(2.14)
USD	5,576	-	-	-	-	-	-	-	-	496	-	6,073
1,154.20	(56.46)	-	-	-	-	-	-	-	-	(5.02)	-	(61.49)
HKD	587	-	-	-	-	-	-	-	-	-	-	587
148.84	(5.94)	-	-	-	-	-	-	-	-	-	-	(5.94)
JPY	1,327	-	-	-	-	-	-	-	-	-	-	1,327
10.29	(13.44)	-	-	-	-	-	-	-	-	-	-	(13.44)
GBP	262	-	-	-	-	-	-	-	-	-	-	262
1,657.20	(2.66)	-	-	-	-	-	-	-	-	-	-	(2.66)
합계	8,645	-	-	-	-	-	-	-	-	990	241	9,876
	(87.54)	-	-	-	-	-	-	-	-	(10.02)	(2.45)	(100.00)

\* ( ): 구성 비중

### ▶ 환헤지에 관한 사항

환헤지란?	※ 해당사항 없음
펀드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원)

투자설명서상의 목표 환헤지 비율	기준일(2016.04.03) 현재 환헤지 비율	(2016.01.04 ~ 2016.04.03) 환헤지 비용	(2016.01.04 ~ 2016.04.03) 환헤지로 인한 손익
-	-	-	-

주) 환헤지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위험을 선물환계약 등을 이용하여 줄이는 것을 말하며, 환헤지 비율은 기준일 현재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외화자산의 평가액 대비, 환헤지 규모를 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 ▶ 환헤지를 위한 파생상품

※ 해당사항 없음

### ▶ 주요자산보유현황

※ 펀드자산 총액에서 상위 10종목, 자산총액의(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평가액) 5% 초과 보유종목 및 발행주식 총수의 1% 초과 종목의 보유내역을 보여줍니다.

※ 보다 상세한 투자대상자산 내역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펀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서 조회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는 본 자산운용 보고서와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식 - Long(매수)

(단위: 주, 백만원, %)

종 목 명	보유수량	평가액	비중	비고
M3, Inc(JPY)	13,100	367	3.72	일본/Others
Gilead Sciences, Inc(USD)	3,400	360	3.64	미국/Others
HCA HOLDINGS INC(USD)	3,950	356	3.60	미국/Others
Celgene Corporation(USD)	3,000	347	3.50	미국/Others
Sinopharm Group Co Ltd(HKD)	68,000	343	3.47	중국/Others
UNITEDHEALTH GROUP INC(USD)	2,300	342	3.46	미국/Others
CVS Health Corporation(USD)	2,600	311	3.15	미국/Others
Humana Inc(USD)	1,400	296	2.99	미국/Others

▶ 주식 - Short(매도)

※해당사항 없음

▶ 채권

※해당사항 없음

▶ 어음

※해당사항 없음

▶ 집합투자증권

※해당사항 없음

▶ 장내파생상품

※해당사항 없음

▶ 장외파생상품

※해당사항 없음

▶ 부동산(임대)

※해당사항 없음

▶ 부동산 - 자금대여/차입

※해당사항 없음

▶ 특별자산

※해당사항 없음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비고
현금	USD Deposit		496	0.00		5.02
콜론	동부증권	2016.04.01	302	1.62	2016.04.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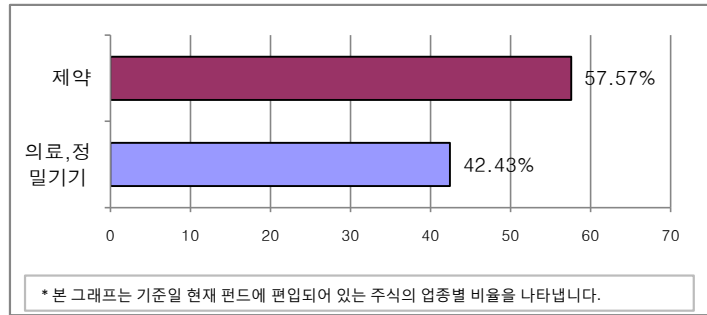
▶ 기타자산

※해당사항 없음

### ▶ 업종별(국내주식) 투자비중 - Long(매수)

(단위: 백만원, %)

	업종명	평가액	보유비율
1	제약	255	57.57
2	의료,정밀기기	188	42.43



주) 보유비율=평가액/총평가액\*100

주) 업종기준은 코스콤 기준

### ▶ 업종별(국내주식) 투자비중 - Short(매도)

※해당사항 없음

### ▶ 업종별(해외주식) 투자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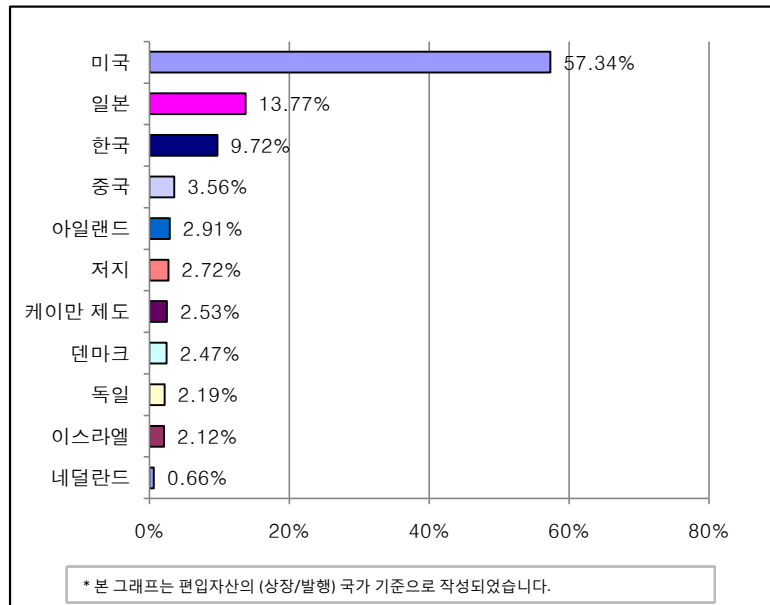
※해당사항 없음

### ▶ 국가별 투자비중

#### 발행(상장)국가별 투자비중

\* 일부 해외종목의 경우 거래소 상장국가와 실제 발행국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국가	비중(%)
미국	57.34
일본	13.77
한국	9.72
중국	3.56
아일랜드	2.91
저지	2.72
케이만 제도	2.53
덴마크	2.47
독일	2.19
이스라엘	2.12
네덜란드	0.66



## 투자전문인력 현황

###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억원)

성명	운용개시일	직위	운용중인 다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주요 경력 및 운용내역	협회 등록번호
			펀드 개수	운용 규모	개수	운용 규모		
홍주연	2016.01.04	책임전문 운용인력	1	243	3	87	- 메리츠자산운용 Portfolio Manager(Global Healthcare) -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 주식운용 애널리스트 - 도이치투자신용 주식운용 애널리스트 - Asian Strategic Partners 투자자문	2113000536

주)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운용전문인력이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운용전문인력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 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펀드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운용전문인력
2016.01.04 - 현재	홍주연

(주 1) 2016.04월 기준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 ▶ 해외 투자운용전문인력

성명	직위	운용기간	주요 경력 및 운용내역
Oliver Kubli	Managing Director	2016.01.04~현재	2008년~현재 : Bellevue Asset Management AG 글로벌 헬스케어 운용팀장 / Managing Director 2001년~2007년 : Züricher Kantonalbank 선임운용역 1998년~2000년 : Swiss Re Investors 유럽 주식운용역

### ▶ 해외 위탁운용

해외위탁운용사	소재국가	위탁업무의 범위
Bellevue Asset Management AG [밸류자산운용]	Switzerland	Bellevue Asset Management AG(BAM)와 메리츠자산운용이 공동운용하는 구조임 - 펀드 운용 및 운용지시 - 리서치업무

## 비용현황

### ▶ 보수 및 비용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펀드 명칭	구분	전 기		당 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 신탁(주식)	자산운용회사	-	-	10.68	0.23	
	판매회사	종류A	-	-	1.95	0.15
		종류Ae	-	-	0.31	0.08
		종류C1	-	-	4.11	0.32
		종류Ce	-	-	0.28	0.12
		종류S	-	-	0.22	0.06
		종류CW	-	-	-	-
		종류C-P	-	-	0.30	0.14
		종류C-P2	-	-	0.64	0.12
		종류S-P	-	-	0.06	0.04
	종류C-Pe	-	-	0.04	0.07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	-	0.39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	-	0.22	0.01	
	보수 합계	-	-	19.22	1.34	
	기타비용**	-	-	7.04	0.15	
	매매·중개수수료	단순매매·중개 수수료	-	-	8.45	0.19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	-	0.14	0.00	
합계	-	-	8.59	0.19		
증권거래세	-	-	-	-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 수수료는 제외한 것입니다.

※ 성과보수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총보수비용 비율**

(단위: 연환산, %)

펀드 명칭	구분	해당 펀드			상위펀드 비용 합산		
		총보수·비용 비율(A)	매매·중개수수료비율(B)	합계(A+B)	총보수·비용 비율(A)	매매·중개수수료비율(B)	합계(A+B)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주식]	전기	-	-	-	-	-	-
	당기	0.63	0.76	1.39	0.63	0.76	1.39
<b>종류(class)별 현황</b>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주식]종류A	전기	-	-	-	-	-	-
	당기	1.61	-	1.61	2.20	0.72	2.92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주식]종류Ae	전기	-	-	-	-	-	-
	당기	1.30	-	1.30	1.98	0.72	2.69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주식]종류C1	전기	-	-	-	-	-	-
	당기	2.31	-	2.31	2.84	0.94	3.78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주식]종류Ce	전기	-	-	-	-	-	-
	당기	1.50	-	1.50	2.16	0.69	2.86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주식]종류S	전기	-	-	-	-	-	-
	당기	1.26	-	1.26	1.92	0.69	2.60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주식]종류CW	전기	-	-	-	-	-	-
	당기	1.00	-	1.00	1.25	0.61	1.86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주식]종류C-P	전기	-	-	-	-	-	-
	당기	1.55	-	1.55	2.27	0.69	2.96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주식]종류C-P2	전기	-	-	-	-	-	-
	당기	1.51	-	1.51	2.28	0.62	2.91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주식]종류S-P	전기	-	-	-	-	-	-
	당기	1.18	-	1.18	1.86	0.71	2.57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주식]종류C-Pe	전기	-	-	-	-	-	-
	당기	1.27	-	1.27	1.94	0.69	2.63

주1) 총보수, 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총액을 순자산 연평 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

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주2)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주3) 모자형의 경우 모펀드에서 발생한 비용을 자펀드가 차지하는 비율대로 안분하여 합산한 수치입니다.

**투자자산매매내역**

▶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을율**

(단위: 주, 백만원, %)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

매 수		매 도		매매회전을율 <sup>(주1)</sup>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해당기간	연환산
488,595	9,364	10,550	445	10.95	43.91

주1) 해당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격의 총액을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격으로 나눈 비율

▶ **최근3분기 매매회전을율 추이**

(단위: %)

2015.04.04 ~ 2015.07.03	2015.07.04 ~ 2015.10.03	2015.10.04 ~ 2016.01.03
-	-	-

주) 매매회전을율이 높을 경우 매매거래수수료(0.1%내외) 및 증권거래세(매도시 0.3%) 발생으로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펀드 비용이 증가합니다.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단위: 백만원, %)

펀드명칭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1	
	투자금액	수익률
	1,000	-9.75

주) 투자금액 및 수익률은 자산운용사의 운용전략에 따라 추가설정(환매)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금액 및 수익률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 \* 고객님의 가입하신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의 자산운용회사인 [메리츠자산운용]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국민은행]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 \* 투자자의 계좌별 수익률 정보는 판매회사의 HTS나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각종 보고서 확인 : 메리츠자산운용 [www.meritzam.com](http://www.meritzam.com)  
금융투자협회 <http://dis.fundservice.net>



## 참 고 : 펀드 용어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을 말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의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의 50%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대상의 제한을 받지않는 펀드입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의 50%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의 50%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집합투자기구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에게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집합투자기구(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판매회사	펀드의 판매, 환매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를 말하며,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	펀드 일반사무관리업자의 위탁을 받아 기준가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회사간의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